



3 EU 집행위, 정부 민감 데이터 미국 클라우드 사용 제한 검토

⇒ 지정학 갈등 고조 속, EU 디지털 주권 입법 본격화

- EU 집행위, '26년 5월 '기술 주권 패키지' 발표 예정
 -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분야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'기술 주권 패키지'를 발표할 예정이며, 공공 부문 민감 데이터의 역외 클라우드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포함
 - 제안의 핵심은 전면 금지가 아닌 '민감도 기반 제한'으로, 금융·사법·의료 데이터를 처리하는 정부·공공기관에 높은 수준의 소버린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을 요구하는 방식 논의 중
 - 패키지에는 클라우드·AI 개발법(CADA)과 반도체법 2.0이 포함될 예정으로, EU 내 자체 솔루션 개발을 장려하는 입법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는 전략
- 美·EU 갈등 심화와 클라우드법 리스크가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부상
 -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·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EU 내에서 미국 클라우드 사업자 의존도 축소 요구가 강화되었고, 이번 논의는 이 흐름이 구체적인 규제 입법으로 전환되는 분기점
 - '18년 제정된 미국 클라우드법(CLOUD Act)은 데이터 저장 위치와 무관하게 미국 법 집행기관의 데이터 요청을 허용, EU 회원국 시민 정보의 역외 유출 가능성이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속 제기
 - EU 공공기관은 규정 준수 조건으로 미국 기업 클라우드를 통해 의료·금융 등 민감 데이터를 처리 가능하나, 미국 기업이 해당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의존 구조의 전략적 취약성이 가시화

⇒ EU 기술 주권 패키지의 핵심 조치

(1) 공공 클라우드 사용 제한: 전면 금지 아닌 민감도 기반 단계적 규제 설계

- 역외 클라우드 전면 배제 아닌 민감도 기반 단계적 제한 방식 채택
 - EU 역외 기업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한 공공 부문 민감 데이터 처리를 제한하는 방안이 패키지의 핵심 조치로, 금융·사법·의료 데이터에 높은 수준의 소버린 클라우드 인프라 요건 적용 논의

- 역외 기업의 정부 계약 완전 배제가 아닌 데이터 민감도 등급에 따라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유연한 규제 설계를 채택함으로써, 민간 기업은 이번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
- EU 집행위 대변인은 소버린 클라우드 개발 기회 확대와 다양한 공급자의 시장 진입 지원이 목표라고 설명, 자국 클라우드 사업자 육성 의도 명확화
- 美 클라우드법·EU GDPR 간 관할권 충돌이 규제 추진의 법적 근거로 부각
 - 전문가들은 미국 클라우드법과 EU GDPR이 동일 데이터에 상충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, 미국 기업이 EU 법을 준수하면서 미국 당국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딜레마 상황 지속 지적
 - 미국 클라우드 기업이 두 법령을 동시에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EU의 소버린 클라우드 요구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

(2) CADA·반도체법 2.0: 클라우드 제한을 넘어 EU 자체 역량 확보로 확장

- CADA, EU 역내 클라우드·AI 솔루션 개발 장려와 공공 조달 우선 지원 목표
 - CADA는 유럽 자체 클라우드 및 AI 솔루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신규 법안으로, 기술 주권 패키지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포함
 - 공공조달 채널을 통해 유럽산 솔루션의 시장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역외 사업자 대비 유럽산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
 - 클라우드 이용 제한(규제 트랙)과 CADA(육성 트랙)가 동시에 추진되는 구조로, 美 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유럽산 대안을 키우는 투트랙 전략을 법제화
- 반도체법 2.0, 클라우드 인프라의 물리적 기반인 반도체 자립까지 아우르는 구조
 - 반도체법 2.0은 EU 역내 반도체 설계·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입법으로, 소버린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까지 자립 범위를 확장하는 의미를 가짐
 - 클라우드 사용 제한(규제) → CADA(산업 육성) → 반도체법 2.0(인프라 자립)으로 이어지는 3단 구조로, ‘기술 주권 패키지’가 디지털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임을 시사
 - 다만 패키지 발효를 위해 EU 27개 회원국 전체 승인이 필요하며, 내부 논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최종 내용과 시행 시점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중장기 관점의 대응이 필요



➔ 유럽의 독자적 대안 모색 및 프로젝트 현황

(1) 선언에서 실행으로, 유럽 각국 정부의 디지털 자립 전환 가속화

- 유럽 각국 정부, 공공 SaaS 갱신 시 EU산 대안 우선 검토 관행 확산
 - 복수의 EU 회원국 정부가 미국 플랫폼 의존도 축소를 목적으로 디지털 자립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, 공공 SaaS 계약 갱신 시 EU산 대안을 우선 검토하는 관행이 자리잡는 추세
 -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입 확대와 국산 기술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각국 디지털 주권 정책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부상,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안보 관점의 전략적 선택으로 위상 격상
 - 다만 미국 빅테크 플랫폼이 이미 공공 업무 전반에 깊이 내재화된 상황에서 전환 비용과 호환성 문제가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, 단기 전환보다 단계적 대체 경로 설계가 불가피한 전망
- 프랑스, 정부 자체 개발 화상회의 도구 '비시오'로 美 SaaS 대체 착수
 - 프랑스 정부는 MS 팀즈·줌 등 미국 SaaS 도구를 대체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화상회의 서비스 '비시오(Visio)'를 전 부처에 도입, '27년까지 전 국가 서비스 기관 배포 완료'를 목표로 추진 중
 - 정부가 직접 개발·운영하는 오픈소스 기반 도구를 공공 업무에 의무 적용하는 방식으로, 특정 외국 기업에 대한 데이터 접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
 - 미국 빅테크 SaaS에 오랫동안 의존해온 유럽 공공 부문에서 정부 주도 오픈소스 전략이 실행 단계로 진입한 첫 대표 사례로, 다른 회원국의 유사 정책 추진을 자극할 가능성

(2) EU 집행위, 소버린 클라우드 조달로 '협력 기반 자립' 모델 공식화

- 집행위, 1억 8천만 유로 소버린 클라우드 조달로 인프라 레이어 전환 시동
 - EU 집행위는 '26년 4월 EU 기관·서비스용 유럽 소버린 클라우드 4개 사업을 낙찰, 약 1억 8,000만 유로 규모의 공공 조달을 집행하며 역내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착수
 - 해당 사업은 EU 기관 내부 업무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유럽 역내에서 조달·운영하는 것을 목표로,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는 첫 구체적 실행 조치로 평가
 - 이번 조달 집행은 '기술 주권 패키지' 입법 논의와 병행해 진행된 것으로, 규제 시행 전에도 실질적 인프라 자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

- **합작·파트너십 구조로 ‘협력 기반 자립’ 방식 채택**
 - 낙찰된 4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프랑스 방산·기술 기업 Thales와 Google Cloud의 합작법인이 수행하는 구조로, 미국 빅테크 기술력을 활용하되 데이터 관할권은 EU 역내에 두는 방식 채택
 - 이는 미국 빅테크를 공공 시장에서 전면 배제하기보다 EU 기업이 주도권을 갖는 합작 구조를 통해 기술력 격차를 보완하면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는 현실적 절충안으로 해석
 - ‘협력 기반 자립’ 모델이 EU 공공 클라우드 조달의 실질적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, 미국 빅테크 입장에서조차 유럽 로컬 파트너와의 합작이 EU 공공 시장 유지의 핵심 조건이 될 전망

출처 : CNBC 외(2026.5.)

<https://www.cnn.com/2026/05/07/eu-commission-cloud-sensitive-data.html>
https://news.futunn.com/en/post/72686971/report-the-eu-is-considering-restricting-the-use-of-us?level=1&data_ticket=1778476085780018
<https://www.ibtimes.com/eu-considers-restrictions-us-cloud-providers-sensitive-government-data-3802486>
<https://www.digital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63626>
<https://www.itbiznew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2174>
<https://www.ddaily.co.kr/page/view/2026050805412483345>